
INVESTORS OF INSIGHT

증시 동향전망 및 전망	1
지표로 보는 경제	2
경제기사 풀어보기	4
참~ 쉬운 경제 교실 - 환율②	5
이달의 경제 보고서	7
금융생활 길잡이 - 연금②	8
경제칼럼 - 주식시장에서의 균중	10
투자선행지수	11

여러분의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Polaris’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 062) 431 - 6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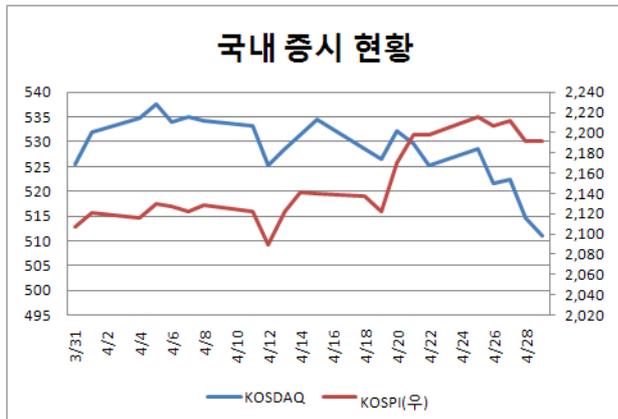
사단법인 더함 <http://www.kjecc.co.kr>

더함 투자포럼 <http://plusinves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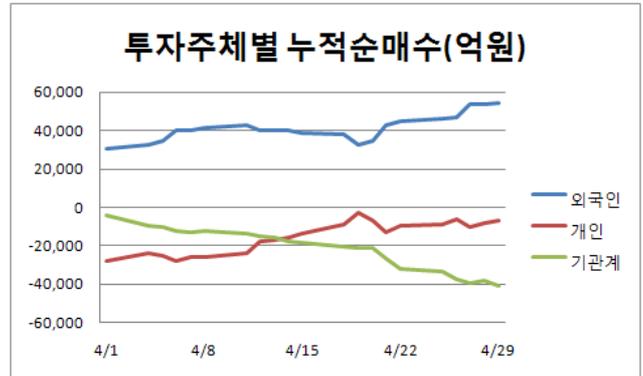
□ 증시 동향 및 전망

KOSPI 2200선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기록 외국인 영향력이 강해지고 업종 쓸림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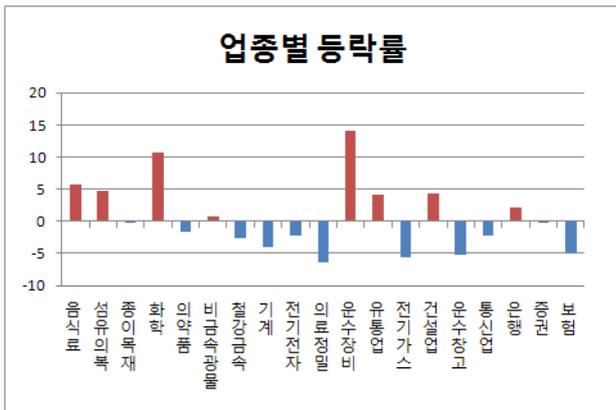
4월 한국증시는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KOSPI지수는 3월 중순부터 시작된 상승세를 이어가더니 2100선과 2200선을 차례로 돌파했다. 지수상승률은 4.7%였다. 이와 달리 KOSDAQ은 2년 가까이 갇혀 있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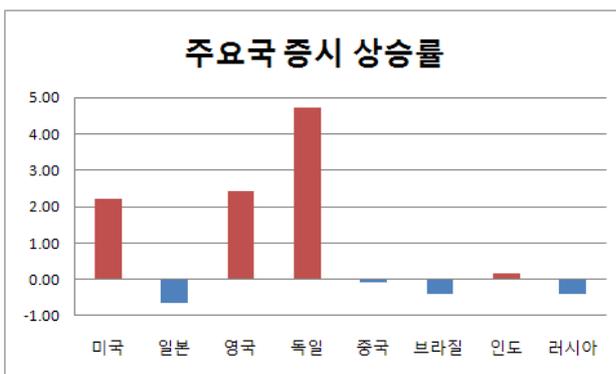
KOSPI 상승을 이끈 주역은 외국인이었다. 연초에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3월 들어 일본 대지진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달에도 S&P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발표되었던 4월 19일 전후 며칠을 제외하고 줄곧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수가 상승하자 주식형 펀드 환매가 재개되면서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꾸준한 매수세를 이어가며 그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잔고가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증시에 대한 열기가 높아진 한 달이었다.



업종별 상황을 들여다보면 금융위기 이후의 특징인 업종 쓸림현상이 여전했다. 지수를 견인한 업종은 운수장비, 화학, 섬유 의복, 음식료업종이었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데다 경쟁국인 일본 기업들이 대지진으로 생산차질을 겪게 되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화학업종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중국의 수요 증가, 유가의 고공행진,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반사이익에 힘입어 국내 제조업황을 견인하고 있다. 자연히 이들 업종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IT, 철강, 금융업종은 부진한 모습이어서 이들 업종에 투자한 투자자의 소외감이 컸다. 일부 업종만이 상승하는 상황은 우리 증시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쓸림현상은 상승 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하락 시에 증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해외증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수익률이 엇갈렸다. 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일본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브릭스는 큰 움직임 없이 정체된 상황이다. 선진국들은 아직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신흥국들은 이미 상당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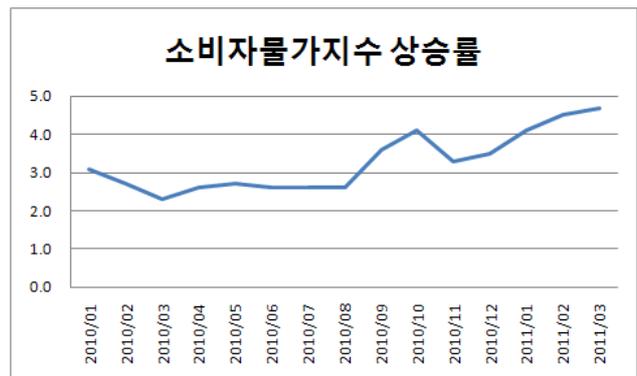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2분기 기업실적을 낙관하긴 힘들다. 그동안 지수가 많이 상승한 만큼 5월은 다소 쉬어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참고하길 권한다.

□ 지표로 보는 경제

물가상승 우려

최근 주식시장은 수출기업들의 호실적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경기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란 호황과 침체를 반복하며 주기를 보인다. 호황에서 침체로 넘어가기 전에는 경기 과열현상을 겪기 마련인데, 이 과열 정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물가상승률이다. 3월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4.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기 직전 5.9%엔 못 미치지만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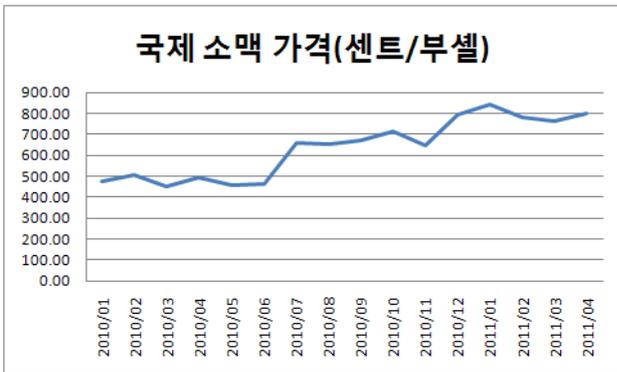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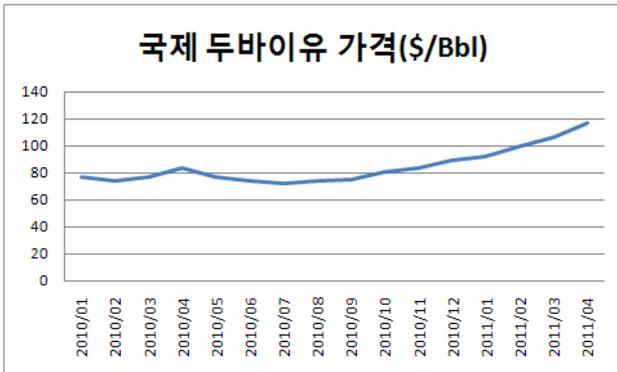


원자재 가격 상승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은 유가와 금속광물 등 원자재, 각종 곡물 및 식품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반적인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는 올해 초 아랍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또한 다른 상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상품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원인은 크게 세계경기 회복과 신흥국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 중국의 무차별 자원

2011년 5월호

확보,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급 차질, 그리고 값싼 달러를 바탕으로 한 국제 투기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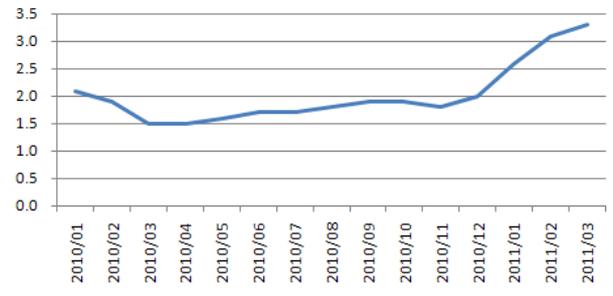


경기 자체의 과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에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근원인플레이션¹⁾을 보면 또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은 3월 3.3%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상승하고 있다. 2008년 12월 5.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국내 경기 자체도 점차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국내 경제에 통화량이 많이 풀려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과 같은 긴축정책에 속도를 내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 근원인플레이션 :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추려낸 물가상승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산물, 석유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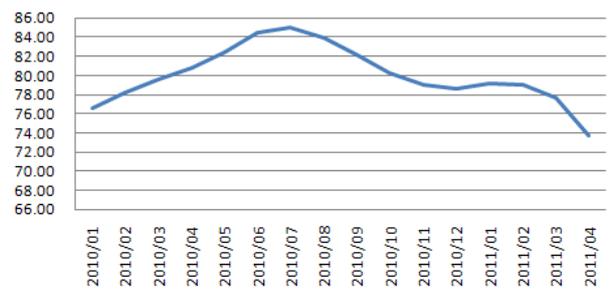
근원인플레이션율



물가상승, 언제까지 계속될까

통제가 불가능한 상품가격 상승의 원인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달러의 강세전환이다. 달러의 약세로 인해 국제 자본이 미국을 벗어나 신흥국과 상품시장으로 흘러들어 가격상승을 유발했다. 달러는 작년 7월 약세로 반전한 이후 줄곧 하락해 역사적 저점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런 달러약세는 짧게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끝나는 6월, 길게는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자본은 다시 미국으로 흘러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물가상승 원인이 하나 줄어들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달러 인덱스



□ 경제 기사 풀어보기

서민 빚 한계 왔나 ... '돌려막기' 대출 급증 [한국경제신문 2011년 4월 19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상호금융회사나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덩달아 증가했다. 2003년 터진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이번에는 '서민발 금융대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19일 개인신용정보 평가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저신용층(7~10등급)의 신용카드 대출이 최근 급증했다. 7등급 가운데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3분기 37만명에서 4분기 68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8등급은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9등급은 13만명에서 17만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10등급 카드 대출 이용자는 29만명에서 8만5000명으로 줄었다.

저신용자의 카드 대출 금액도 급증했다. 7등급 카드 대출 평균 잔액은 지난해 9월말 471만원에서 연말 536만원으로 65만원(13%) 늘었고, 8등급은 425만원에서 527만원으로 102만원(24%), 9등급은 461만원에서 597만원으로 136만원(29%) 증가했다.

지난해 카드 대출은 전년(18조원)보다 38% 늘어난 2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우량 고객인 1등급의 카드 대출이 지난해 9월말 1076만원에서 연말 883만원으로, 2등급은 890만원에서 779만원으로 각각 줄었는데도 저신용 서민층의 이용확대로 급증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직접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상당수 카드 대출은 다른 빚을 갚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카드는 은행 이용자가 제2금융 대출을 쓰기 직전에 사용하는 수단"이라며 "서민가계 부채 문제가 제2금융

권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다중채무자의 금융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2003년에 있었던 돌려막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서는 돌려막기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상호금융회사나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54조8000억원으로 17.1% 늘었다.

2009년부터 시작한 희망홀씨 대출은 연체율이 이미 3%를 넘어섰다. 정부가 보증해준 농협의 근로자생계보증 대출은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취급한 것만 따져도 연체율이 10%를 넘는다.

저축은행의 PF대출 부실로 금융권이 시끄러운 가운데 또 다른 위험으로 가계대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에는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버블 시기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소위 '하우스 푸어'도 심각하지만, 저소득층의 부채문제도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저소득층입니다. 이번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드사들이 과열 경쟁을 하는 바람에 카드보급률과 사용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은 접근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소득·저신용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고등이 됩니다.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카드사의 부실 증가하고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린 서민의 고통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대출 목적이 생계유지라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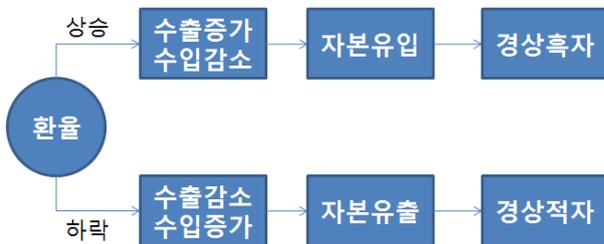
□ 참~ 쉬운 경제 교실 - 환율 ②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지난 호에서 환율이 변동하는 요인으로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꼽았었다. 여러 요인들로 인해 환율이 변동하면 다시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률 등의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 국제수지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한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000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을 경우, 1달러짜리 반도체칩을 하나팔면 원화로 100원의 수익이 더 늘어난다. 게다가 반도체칩 가격을 1달러 이하인 0.95달러로 내리면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대신 1달러만큼의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1000원에서 1100원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다. 반대로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락한다면 수출기업은 100원만큼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수출이 위축됩니다. 대신 원자재를 수입할 때는 100원만큼 싸게 들여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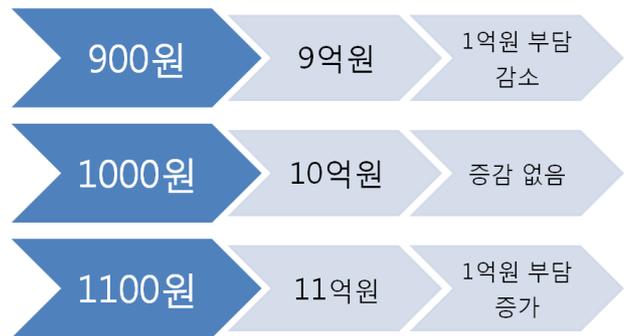
또한 환율이 상승할 경우 해외여행이나 해외자산 매입이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여행이나 국내자산 매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 물가

환율이 상승하면 석유, 광물, 부품 등을 수입할 때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해 150달러까지 올랐던 2008년보다 110달러 수준인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비싼 이유는 당시보다 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하락시켜 국내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 외채상환 부담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환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늘어난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적은 원화로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외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1백만 달러를 외국에서 빌려온 경우 아래와 같다.



환율상승의 사례

환율상승의 영향에 대한 사례로 금융위기 이후의 우리나라를 들 수 있다. 금융위기 직후 환율 급등세가 진정된 이후 국내 수출기업의 실적이 급성장했다. 주식시장에

서 수출기업이 상승을 주도했으며 경제성장률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원자재 가격과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물가상승 압력이 심해져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현상도 동시에 겪고 있다.

환율하락의 사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만큼 제조업 중심의 수출을 통해 고성장세를 누려왔다.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높게 유지한 것도 있다. 이 정책이 국제무역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중국도 점차 위안화 환율을 하락(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임금상승과 함께 수출중심의 중국이 7년만에 무역적자를 보게 된 원인이 되었다. 반면 중국은 이를 국내물가 안정과 내수소비시장 성장의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중국투자공사를 필두로 해외자산과 원자재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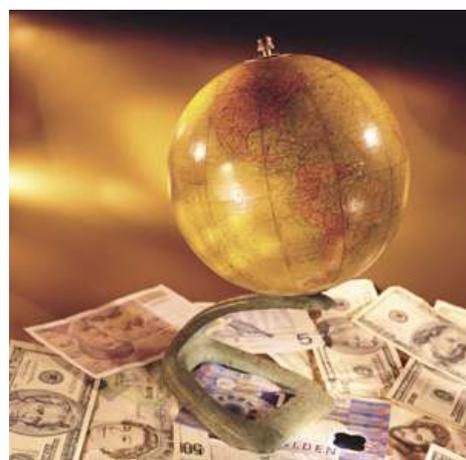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환율정책

관리변동환율제도였던 1980~1997년의 환율정책 목표는 경상수지 균형, 물가, 고용의 안정에 비중을 두었으나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에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규모는 아직 작은 편이고 외부충격에 대해 민감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원리를 중시하되 일시적 수급불균형이나 외부충격으로 환율이 급등락 할 경우 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하게 된다. 외환시장개

입을 통해 환율변동 속도를 조절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하는 것이다. 시장개입을 위한 원화재원은 한국은행 발권력,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자금, 한국은행이 보유·운용하는 외환보유액이 있다.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지급준비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보유하면 외환부족 사태를 방지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함으로써 외환위기의 발생가능성을 줄여준다. 또한 대외신인도를 높여 국내 경제주체의 해외자본조달 비용을 낮추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95%이상이 미국국채이고 그밖에 외화예치금, IMF포지션, 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각 나라의 경제여건에 따라 다르나 가급적 여유 있게 보유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과다보유 시에는 기회비용과 운용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2011년 3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986억달러로 세계 7위의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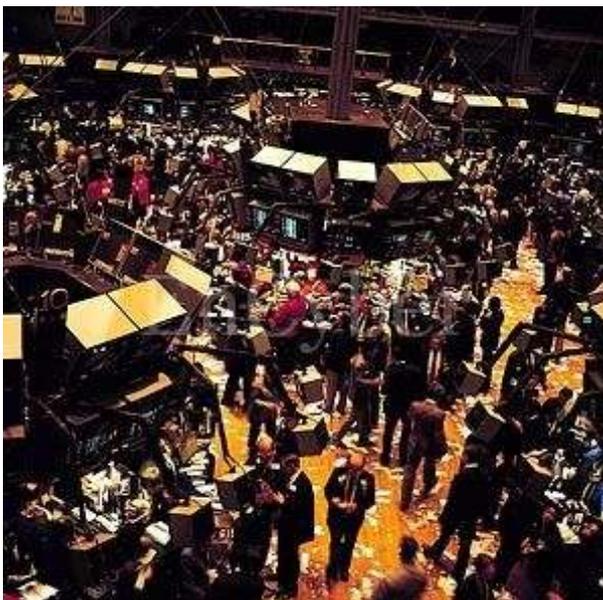
□ 이달의 경제 보고서

인플레이션이 금융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산은경제연구소(4월 14일)

1. 국내 인플레이션 국면 장기화 가능성
 - 상품시장 강세국면 지속 전망
 -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 글로벌 유동성 확대

2. 인플레이션과 금융자산 수익률 관련성
 - 인플레이션 기간
상품>TIPS>T-Bills>리츠>채권>주식
 - 디스인플레이션 기간
주식>리츠>채권>상품>TIPS>T-Bills

3. 시사점
 - 자산배분전략 수립 시 인플레이션 위험 고려 필요
 - 금융기관은 각 시기에 대체투자 상품 니즈에 능동적 대응 필요



중국의 무역적자와 소비시장 전망 - 현대경제연구소(4월 18일)

1. 7년 만의 무역적자와 소비시장
 - 1분기 -10.2억 달러 적자
 - 위안화 절상,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국내 소비성장에 기인

2. 중국 소비시장의 전망과 성장
 - 민간소비 증가율 급등과 지출액 급증
 -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의 증가
 - 2020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예상

3. 중국 소비 시장의 구조 변화
 - 서부 내륙 소비 시장의 확대
 - 중산층과 신세대의 소비주도 계층 부상
 - 럭셔리 소비시장 확대와 내구재 수요 증가
 - 온라인 소매 판매의 급증
 - 금융, 해외관광, 의료서비스 수요 급증

4. 시사점과 대응방안
 - 지역별 소비성향과 소득수준에 맞춘 차별화된 시장진입전략 수립
 -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연계한 의료관광 등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과 한류 콘텐츠의 개발
 - 중국 내수를 겨냥한 고급 내구재 및 서비스 수출 확대
 - 온라인 시장진출 유망 품목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다원화

□ 금융생활 길잡이 - 연금② (개인연금)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대비한 사적연금(노령연금)으로 저축상품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국내거주자로서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령합니다. 불입금액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입니다.

개인연금의 특징

개인연금의 장점은 세제상의 혜택이 있다는 점입니다. 2001년 이전의 가입자는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고 연금 지급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주민세만 부과됩니다.

2001년부터의 가입자는 불입액의 100% (퇴직연금 포함하여 연간 400만원 한도)가 소득 공제되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소

득 공제된 금액에 대한 연금소득세 5.5% (주민세 포함)가 원천 징수됩니다.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분기별 600만원 까지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는 472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공제받았던 금액 전부를 환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납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해지가산세와 주민세 0.2%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 중에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과세되고 일시금으로 찾을 경우 전체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됩니다.

개인연금의 분류

개인연금은 증권사, 은행, 보험사 모두에서 가입할 수 있고 금융기관별로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의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기관별 개인연금

구분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운용기관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사
이익배당	실적배당	실적배당	예정이율
운용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다양한 상품자산	주로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	유가증권 등
상품종류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채권형(주식비중 없음) 안정형(주식비중 10%까지 가능)	확정이율형 공시이율형
장 점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높은 기대수익률 연령별 분산투자	원금보존 자유적립	최저보증이율 2~3% 제시, 종신연금형 가능, 보험기능 추가
단 점	주식시장 등락에 따른 변동성 예금자보호법 비적용	낮은 운용수익 상품전환 한계	자유납입 불가,

국민연금과의 차이점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을 받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운용되는 반면 개인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선택적 연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고, 사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이나 평생 중 택일해야하고 사망 시에는 지정인이나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나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적격연금과 비적격연금

앞서 설명했던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

금이 적격연금이다. 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대신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비과세된다.

먼저 적격연금은 연금이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때문에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그동안 매년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은퇴 이후 종합소득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적격연금은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

비적격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연금이 종합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전문직 자영업자 등 은퇴 이후에도 소득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직종의 종사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중도에 해약하더라도 공제받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단지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4.5%만 부과된다. 예를 들면 목돈을 즉시형 종신연금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액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종합소득에서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비교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2001.1.1. 이후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기간	10년 이상	
연금지급기간	55세 이후 5년 이상	
소득공제비율	연간 불입액의 40%	연간 불입액의 100%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비과세	연금소득세 5.5%(주민세 포함)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납입금액의 4% 해지추징세 부과 (연간 7만2000원 한도)	납입금액의 2% 해지가산세 부과

□ 경제칼럼 - 주식시장에서의 균중(광주드림 개재)

정재원

2011.04.21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7년에 기록했던 최고점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2007년과 전혀 다르다. 2007년 당시 언론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식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여기에 펀드 열풍이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가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호황은 오래 가지 못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다 투자자들은 공포심에 떨며 주식시장의 출구로 몰려들었다. 이후 금융위기가 진정세를 보이고 급락한 주가가 회복하는 단계에서는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원금을 회복하자 너나 할 것 없이 펀드환매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마젤란 펀드를 운용한 전설적인 펀드매니저 피터린치는 '출구에 균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조용히 걸어 들어오고, 입구가 균중이 몰릴 때는 출구로 걸어 나가면 된다' 라고 그의 저서에서 언급했다.

주식시장 입구에 균중이 몰린 2007년 시장의 출구로 빠져 나오고, 2009년 이후 출구에 균중이 몰릴 때는 입구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던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됐을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짚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모습이다. 언론의 기사들도 장밋빛 전망보다는 오히려 물가상승,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한 저축은행과 건설업 문제 등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사들이 더 많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입구와 출구 모두 한가한 모습이다. 빠져나갈 사람은 모두 빠져나가고 관심을 가지고 새로이 입장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이 어렵다면 입구로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날지 출구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지를 지켜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투자선행지수

투자선행지수는 (사)경제문화공동체 더함의 연구원들이 오랜 기간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투자선행지수에는 국내 경기 동향과 시중자금의 동향, 상장기업들의 실적 등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선행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란 막대그래프인 투자선행지수가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진입시점, 반대로 (+)에서 (-)로 전환되는 시점을 시장이탈시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산출된 투자선행지수는 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경기지표와 증시지표 간 괴리를 보이다가 1월 경기지표가 반등하면서 투자선행지수도 (+)로 전환되었습니다.

